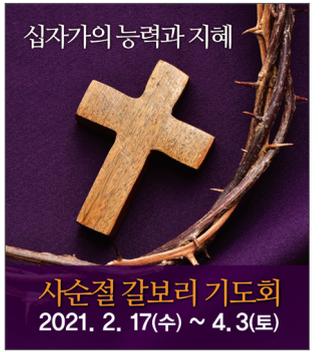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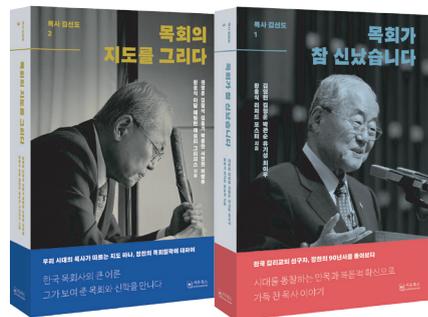
김선도 감독 '장천의 울림' 도서 헌정식 열려

장천의 아흔 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를 담은 책, <목사 김선도> 헌정

한국 감리교회 산증인으로 큰 업적을 남긴 김선도 감독님의 도서 헌정식 '장천의 울림'이 2월 25일(목) 오전 11시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장천의 아흔 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를 담은 책 <목사 김선도>는 1권 『목회가 참 신났습니다』와 2권 『목회의 지도를 그리다』로 구성되었다. 책은 그동안 광림교회와 함께했던 목사들과 외국 신학자, 영국 상원의원 및 가족 등 총 15명의 집필진들이 자신의 시선으로 본 김선도 감독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목회가 참 신났습니다
이 책의 편찬을 처음 제안했던 최우 목사(종교교회)는 이날 '이정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김선도 감독님의 헌신과 삶이 한국교회 유산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제자들의 수고로 2019년 여름 시작되었다"고 집필 동기를 말하였다. 또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위대한 것

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감독님의 삶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목회의 지도를 그리다
1부 예배 뒤 진행된 헌정식 순서에서 서창원 목사는 논찬(서평)을 통해 "감독님이 즐겨 하는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감독님의 강인한 목회철학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를 희망한다. 이 책

은 학문적이기 보다 살아 숨 쉬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서 광림교회 성도인 배우 김병기 권사의 나레이션과 함께 감독님의 지나는 생애를 담은 '장천의 울림'이 영상으로 펼쳐졌다. 제자들을 대표해 김영현 감독이 "그동안 제자들과 후배 목사들이 감독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은혜로운 순간들의 기록을 남겨 감독님께 드리고, 성도들의 신앙 지침으로 삼고자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감독님께 <목사 김선도>를 헌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림교회 장로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감독님께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감독님은 2년 전까지는 교회에 직접 나와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은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교회와 광림교회를 늘 염려하고 계신다. 평생을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시다. 감독님을 위해 책을 집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목사 김선도>에 대하여 한 집필진은 "개인의 인생과 신앙, 그리고 목회와 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결정체라 말할 수 있다. 영적인 삶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고,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은 루체포레 내 빛의숲서점(02-2056-5771) 및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십자가로 나아가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마가복음 13장 13절)

제자들은 약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보고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고 흔들렸습니다.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믿음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십자가 이후의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자 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생명의 기쁨을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이란 이런 종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복과는 먼 삶을 산 듯 보이지만 사실 가장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던 건강, 재물, 성공, 명예 등 삶의 기반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성도의 삶이자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핍박, 외로움과 어려움 등이 있을지라도 결국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가 삶에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듯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곧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은 곧 체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실이 나와 상관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예수님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



마가복음 13장 9~13절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 또 복음이 먼저 만
11. 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성이 있습니까? 이는 단지 과거에 지나가버린 역사,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 중에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4-15)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거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입할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 중에 성령이 함께하시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고난 중에도, 더 나아가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이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고난 중에도 능히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13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견디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나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물론 삶이 비참하거나 억울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일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견디신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5)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견디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망을 품어라”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 미래 지도자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 열어



서울남연회는 22대 중점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20명에게 각 200만원씩 1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2월 15일 오후 2시,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지키며 학생, 학부모와 함께 장학금 수여식과 감사에

배를 드렸다. 김정석 감독은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라’(딤후 4:5)는 말씀으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힘들게 모아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정성

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성장하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달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감리교회 미래 지도자를 위한 장학금은 연간 40명에게 수여한다. 이번 학기에 2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2학기 장학금은 8월 말 20명의 대상자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미자립 교회와 도약 교회 교역자 자녀 중 대학생들에게 전달된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은 광림교회에서 3,500만원, 연회에서 500만원을 마련해서 지원했다.

서울남연회는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연회’라는 주제에 맞게 장학 사업을 비롯해 22가지 중점사업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김정석 감독, 군선교회 제12대 이사장 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는 2월 17일(수) 오전 광림교회 벨벳성전에서 군선교회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에 배에서 전임 윤보환 목사(영광교회)가 이임하고,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이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열린 취임식에서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은 설교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로 가지”라고 말하며 “복음 자체이며 생명인 예수를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군선교회, 한국교회의 빛이 되는 군선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복했다.

이후 이어진 군선교회기 전달식에서 기를 인계받은 김정석 감독은 “감리교 군선교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역 군목들과 군선교 교역자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군선교가 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는 현재 현역 군목 57명, 군선교 교역자 72명, 군중사관후보생 30명, 후원교회 104교회를 통해 58만명의 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대영 목사(문화홍보실)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봄학기, 역대상·하

광림교회는 <2021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개강한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이다. 범위는 역대상·하이며 3월 2일에 개강하여 5월 18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전만 진행) 현재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좌석의 20%에 한해서는 본당에서 참석이 가능하며, 동시에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학기는 일반/통신 과정의 구분이 없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본당과 온라인 모두 참석할 수 있다. 과제물 수령 및 제출은 화요일과 주일에 본당 로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본당에 참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우울, 분노의 시대에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학기 온,

오프라인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 회복과 삶의 회복을 강조했다.

트리니티 성서연구의 목적은 심오한 신학적 지식이나 성서에 관한 문학적 해석보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서의 내용을 직접 읽게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설교를 보다 더 잘 듣고 이해하며 나아가 교회에 헌신하고 성서적 진리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광림교회 목회선교지원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한해 동안 트리니티 성서대학원과 신앙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 전과 같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보급 소식과 함께 이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라고 개강하게 된 이유를 말했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포토 뉴스



갈보리 새벽기도회
사순절 갈보리 새벽기도회가 2월 17일 ~ 4월 3일까지 진행중이다.



남선교회총연합회
2월 21일 남선교회총연합회 신년예배가 열렸다.



교회학교 새학기 새벽기도회
교회학교 새학기 새벽기도회가 2월 22일~27일까지 나사렛성전에서 열렸다.



감리교 청년 목회자 1차 포럼
<미래시대와 청년목회>가 2월 23일 사회봉사관에서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 2/22 장로회남연회총회
- 2/23 감리교 청년 목회자 포럼
- 2/24 감리교 군목단 세미나
- 2/25 교계 지도자 모임
- 김선도 감독 도서 헌정식
- 나세남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 2/26 감리사협의회
- 2/28 3.1절 기념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어찌하여 나를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고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대륙의 땅을 밟을 수 없듯 우리의 삶 또한 지나간 발걸음 없이는 지금의 나는 없다. 갓 태어난 아이가 몇 분 몇 초에 순간 이동하여 어른이 되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현재의 나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성장의 발판이자 기회였으며 오늘도 그 이유 있는 길을 걷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길을 반드시 지나가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세움과 사용의 때를 부여하신다.

누구나 인생의 희로애락의 여러 골목을 마주하게 되는데 특별하게도 어느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곤고한 만남을 주신다. 그리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사무치는 통곡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데 그 통곡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겻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하셨다. 그만큼 너무나 잔인한 큰 고통이 다가올 것을 다 아시고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라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이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고 견뎌내며 회생되어야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그림을 우리들의 작은 그릇으로는 헤아릴 수 없으므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30대 초반, 죽음의 낭떠러지에 서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 살이 베이는 듯한 고난의 여정을 겪고서야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권사로, 8선교구연합회장으로 과분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지난날 환난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통로가 된 우리 광림교회 기도의 훈련과 세상의 힘든 과정에서도 봉사를 놓지 않는 적극적인 신앙인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힘이였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찬란한 빛을 바라볼 수 있듯이 험난한 과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 더하도록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해야 함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소망한다.



김상문 권사 (남선교회총연합회 8선교구연합회장)

맞춤형 온택트(Ontact) 신앙의 영적 공백 채워

광림교회 각 선교구, 성도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신앙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광림의 각 선교구는 성도들의 신앙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했던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선교구 일일기도회 및 속회지도자교육 : 1선교구(김요섭 목사) 성도들은 1월 19일 ‘온라인 일일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다. 영상 녹화를 통해 전해진 김지은 성도(갈릴리 성기대 솔리스트)의 특송과 간증은 성도들에게 잔잔한 은혜로 다가왔으며, 3교구 성도들은 이해원 권사 가정에 모여 TV를 온라인에 연결해 함께 참여했다. 기도회 후에는 퀴즈를 내 맞추는 성도에게 톨렛을 돌려 목회자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또 1선교

구 성도들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 정해진 성경본문을 함께 읽으며 성경통독에도 도전 중이다. 어려운 부분은 강의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매주 ‘온라인 속회지도자교육’도 업로드 되고 있다.

▶7선교구 토토성 :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진행된 ‘토토성’(토요일 토요일은 성경공부)은 7선교구(김기운 목사) 성도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익숙한 성경을 약간은 생소한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성경의 역사 뿐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들여다보며 늘 읽어왔던 성경의 경치가 더 풍부하게 보이도록 했다. 김기운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되는 비대면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시작될 교회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이 땅 위의 교회가 시작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교회의 뱃머리와 같은 광림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9선교구 임원전지훈련 : 지난 1월 14일 ‘2021 9선교구 임원전지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9선교구(박중섭 목사) 임원들에게만 공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연초 코로나의 악화로 전교인이 함께 임원전지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교구별 임원전지훈련을 권면하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체적으로 준비했다. 강의안 또한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토대로 교회론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리교의 교회론과 광림교회의 교회론, 예배학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 임원들의 심일조 생활과 자세를 강조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교인으로서 성실한 자세를 부탁했다.

이선야 기자 andy8950@naver.com

온가족이 함께하는 <2021 교회학교 겨울 성경캠프>



배재학당 방문미션



정동감리교회 방문미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광림교회 교회학교 겨울캠프가 2월 15일(월)부터 3월 7일(주일)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겨울캠프는 ‘온캠(On Camp)’이란 말이 알려주듯 온라인으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이다. 매일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과 아동부, 중고등부 각 부서 정규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다. 주제말씀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출4:5)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부모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외부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이 계승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이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이번 캠프의 특징은 주중에 정해진 미션을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미션으로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찬양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미션으로 한국 최초 감리교 선교사 아

펜젤러가 세운 정동감리교회와 배재학당을 방문해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독교를 전한 귀한 의미를 되새기며 인증샷을 남겼다. 마지막 미션을 통해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내에 있는 광림역사관을 방문해 광림의 역사를 배우고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도 만나보았다. 3월 7일(주일)에는 학생들이 수행한 미션에 시상을 진행한다. 교회학교는 지난 2월 7일(주일) 저녁예배 때 교사 임명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 30년 근속 교사들을 격려하고 시상했다. 김호영 목사(교육국)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자녀로 세워가자”고 말했다. 교사로 임명된 교사들은 깊은 영적 관심과 기도로 어린 심령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새학기를 앞두고 2월 22일(월)~27(토)까지 “어루만짐”이란 주제로 매일 새벽 6시에 나사렛성전에서 새학기 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회학교의 미래는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지에 달려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가르쳐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길러내자”고 격려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오직 복음으로 Sola Evangelium!”

〈LFC 청년부 겨울수련회〉



광림교회 청년부는 지난 2월 5일(목)부터 7일(주일)까지 “오직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청년들이 복음을 알고(인지), 만나고(情境), 전하게 되길(義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거리두기 2.5 단계 상황 속에서 은혜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부는 정규 예배 시간(목요 쉼이나워십, 주일 5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고, 토요일 저녁 시간에는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 집회에는 김영석 목사(배화교회)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청년들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시간인 토요일에는 네 분의 기독 청년 인플루언서(김건희, 엄인수, 유중갑, 한성욱)와 함께 복

음을 만나기 전과 복음을 만난 다음의 삶의 변화, 복음을 전하며 경험한 은혜들을 진솔하게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시간인 주일 5부 예배시간에는 김주송 목사(청년부)의 ‘복음을 믿고 체험하고 전하며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사명에 대하여 듣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한 민다정 교구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수련회에 저는 이번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은혜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광림의 청년들과 목회팀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박종인 속장은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어떤 수련회보다도 조용했고 차분하게 진행되었지만, 조용한 만큼 깊었고 차분한 만큼 선명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의 내면 깊은 곳 하나하나 친히 살펴보며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고, 허물어버릴 것들을 허물고 세워야 할 것들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통해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모든 광림교회 청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첫사랑을 회복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로 바쁘게 살아왔던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 이후로 교회를 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들으면 힘이 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면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과분한데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맡겨 주시는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일이 행복하지 않은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신앙이 막 성장했을 때는 기쁨이 넘쳤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사역이 너무 많아서 지쳐서 인가 싶어 사역을 내려놓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주일은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은 것처럼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문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기억’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스스로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저의 행동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찬양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 무작정 찬양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찬양을 그저 배경음악처럼 틀어 놓는 정도에서 시간을 내어 집중하며 찬양을 듣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바쁨을 핑계로 주일이 행복하지 않음에도 외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작정 떠오르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주일이 기다려질 줄 믿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행복한 주일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승재 지구장(청년부)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선사북교회, 광림교회 청년부에 감사의 편지 전해



지난해 연말 광림교회 청년부는 <2020 사랑의 연탄나눔>을 통해 ‘사랑의 연탄 나눔본부’와 연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연탄을 전달했다. 감리교 동부연회 정선사북교회(담임목사 김대경)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광림교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광림교회의 사랑의 연탄나눔과 긴급 식량지원은 저희 교회에 생명의 지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죽어

가는 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정선의 사북과 고한 지역에는 도박중독으로 인해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을 잃고 삶의 의욕이 꺾인 채 비참하게 도박의 유희과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이들이 ‘목사님 살려주세요’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2016년 3월부터 정선지방 사북감리교회는 지역에서 떠도는 이분들에게 말로 하는 위로나 섬김, 전도보다는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교회에서 밥상을 차리고 씻지 못해 냄새가 나는 이들을 위해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라고 지역의 사우나 표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지만 이분들은 한결 같이 식당에서 맛보지 못하는 따뜻한 밥맛, 바로 엄마가 해 주신 밥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북감리교회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피뎀은 복음만이 이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선사북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물을 붓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붓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가 지금 흘러흘러 넘쳐 이분들의 심령과 영혼을 적시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헌신과 나눔으로 더욱 힘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김대경 목사(정선사북교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목회현장 -



신명정 목사(현대교)

최근 코로나19로 현대교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식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물을 가져오지만 물이 떨어지면 갈증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학생회실에서는 생수를 나누어 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교에서의 목회는 생수를 짊어지고 본관 3층의 기독교학생회실로 오르며 기도 시작됩니다. 처음엔 주님께 “제가 물장수도 아닌데요...”라고 했지만, 어느새 “이 물을 마시는 학생들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면서, 현대교의 목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 7:37)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대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배를 통해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어 온라인으로 정기예배를, 소그룹으로 대면예배를,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물을 받으러 왔다가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목이 마른 친구들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 내 기독교학생회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침기도회와 성경통독반을 통한 믿음훈련으로 올해는 더욱 현대교에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림의 교우 여러분, 현대교 학생들이 복음을 믿어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목마름(요 19:28)을 채우는 은혜가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꽃으로 제단장식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요

<광림남교회 - 꽃꽂이 선교회>



광림남교회 꽃꽂이 선교회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이면 주일을 위한 꽃꽂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터미널역의 꽃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생동감이 넘치는 꽃시장을 몇 바퀴 돌면서 이번 주 강단, 촛대, 교회학교 예배실, 중보기도실 등 교회 곳곳을 장식할 꽃과 소재들을 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슬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와 같은 찬송가 가사가 절로 떠오르는 아름답고 충만한 시간입니다.

교회에 도착한 후에는 지난주 꽃을 정리하고 새 꽃을 다듬으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꽃을 꽃을 때는 매주 애경사의 뜻을 담아 헌화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담고, 각 절기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미리 구상해둔 모양과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색상과 소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이며 서너 시간쯤 작업을 이어가면 드디어 마무리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꽃꽂이로 인하여 모든 교회와 온라인 예배자들이 창조주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 문이 열리어 말씀이 심어지고 열매 맺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 매주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진심과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당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 나아가는 광림남교회 꽃꽂이 선교회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정축진 권사(광림남교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광림서교회 새학기 새벽기도회>



코로나19가 여전함에도 새로운 시작,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 광림 서교회에서는 2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2021 새학기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자녀를 둔 온 성도님들이 이른 새벽 함께 모여 실시간 온라인으로 찬양과 예배, 기도로 새학기 시작되는 학교 생활과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브리서 11:1~2)이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 세.속.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도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임을 깨닫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7일(토) 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기도제목을 작성하여 간절히 기도하였고, 성찬식과 인수기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눈을 비비며 엄마,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와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

<광림북교회 새학기 기도회>



2월 22일(월)~27일(토)까지, 광림북교회에서 <새학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나.가.자’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새학기를 준비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1) 주제 말씀을 가지고, 북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하며 교회학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이었

습니다. 요일별로 특별찬양 순서를 진행하여 은혜를 더했습니다.

월요일 스테판 & 마리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화-남선교회, 수-여성교회, 목-시온 성가대, 금-교회학교 교사 & 학생, 어린이들까지, 교회의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40~50여명의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대예배실에 모여 기도하였고, 온라인으로도 20여명의 성도님들이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숭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보며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부르심의 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은퇴장로 감사의 글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4) 2월 28일(주일)에는 광림교회 시무장으로 헌신한 박호건, 신동우 2명 장로의 제41회 강남지방회 <은퇴장로 찬하예배>가 드려진다. 교회의 리더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헌신한 모습은 교회 후배 일꾼들에게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명을 향해 달려갈 두 은퇴 장로의 감사의 글을 전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광림교회와의 인연은 시골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선친께서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셨고, 모친 장로님이 1979년 압구정 배밭에 신축 중이던 광림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김선도 감독님과 사모님의 각별한 사랑과 기도로, 적극적인 사고와 체험적인 감독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은 안정을 찾았으며, 감독님의 주례로 우정에 권사와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핑계로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 소홀했었지만, 교우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광림교회 남선교회 임원, 초등부장, 재정부장의

로 봉사하던 중 2001년 장로의 피택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경영 부사장이었고, 주경야독으로 해운 전문 경영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무거운 중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새벽기도회에 나가 엎드려 주님께 하소연하며 답을 구하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는 성경말씀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장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7년 여간 수지성전 광림남교회 재정부장을 감당하며 매년 증액된 예산에 정확히 맞춰 결산되는 것과 지출 절약을 통해 교회버스가 구입되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림교회 본당에 와서 장학위원장으로 봉사하며 장학위원들과 함께 장학 관련 제규정을 정비했고 장학헌금이 많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위원장을 맡아서 실업인 선교회원들과 함께 전교인 비전랜드 동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또 거제조선소 부산항만 시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님을 모시고 다녀온 사이판, 일본, 필리핀 선교여행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

또 새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직임을 받아 새가족 위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열심히 새가족을 섬기고,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루어졌음을 고백드립니다. 또 각 임직에서 저와 함께 헌신 봉사해 온 모든 성도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로직임을 맡은 후 부족한 믿음으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담임 목사님과 성경 말씀대로 따르니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경영사장으로 승진하여 회사도 잘되었으며 44년여 한 직장에서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광림교회 42년 중 20여년의 시무장로 직임을 내려가며 그동안 교회에서 주어진 직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정년은퇴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환란과 절망 속에서도 산 소망과 비전으로 마음과 영혼을 성화시켜 성공적인 삶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 해주신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퇴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몸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건 장로



먼저 은혜 가운데 장로로 은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얼마나 했을까하고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작은 사명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장로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남선교회총연합회장을 하면서 2014년부터 3년 동안 남선교회 여름수련회 때 놓여준 비전교회들을 찾아갔던 일이 먼저 생각납니다. 비전교회들을 보수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위로해주었을 때 교역자들이 고마워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회사업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8곳을 선정해 무료로 예식을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광림교회에 감사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재판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로템정 소년학교’ 학생들을 모아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환하게 웃고 기뻐하는 영혼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슬픔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회봉사관 앞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나눠드린 봉사를 했었습니다. 한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겨주셨던 위원들의 수고가 스쳐지나가네요. 정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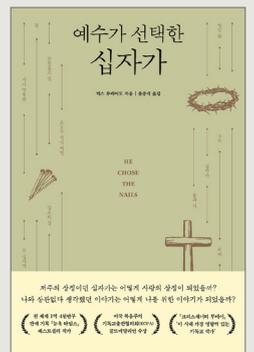
비록 장로 직임에서 은퇴하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남선교회 회원로서는 은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사업위원회 중경위원장을 맡아 앞으로도 후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7-2 웨슬레 선교회 회계 봉사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경을 3번이나 통독하였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내 많은 선교활동들이 위축되리라 생각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붙들어 주시듯 주의 사역을 통해 기쁨도 넘치게 하실 겁니다. 모든 후배 장로님들도 힘내시고 더욱 주의 일에 매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신동우 장로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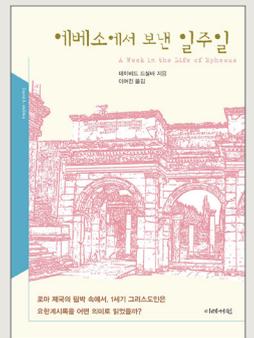
책으로 쌓는 교양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맥스 루케이도 지음

이 책은 십자가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쉬운 예화로 풀어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곳에 있던 가시면류관, 못, 죄패, 갈보리의 길, 수의 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남기신 선물을 하나씩 조명하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 모든 일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깨달을 때,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던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 나를 위한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 이 책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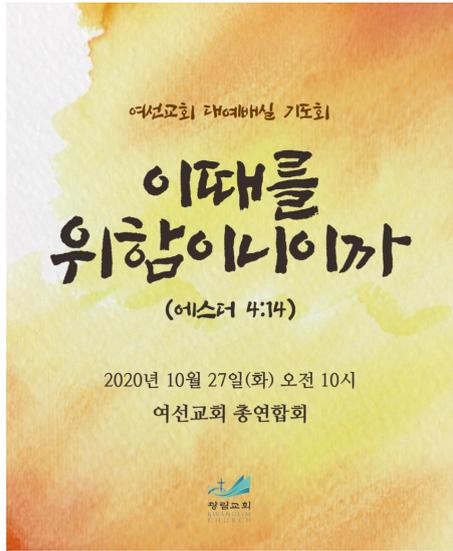
데이비드 드실바 지음

이 책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회유에 시달렸던 1세기 성도들의 투쟁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어떤 위로와 도전을 받았는지 말해준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와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박해했고,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감당할 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세상의 주권자가 로마 황제가 아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며, 악한 세상의 권세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을 선포함으로써 환난의 때를 끝까지 견디도록 권면하고 위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을 배경 삼아 초기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이 때를 위해 부름받은 <여선교회총연합회>



여선교회총연합회는

1953년 10월 교회 창립과 더불어 '부인선교회'로 조직되어 1957년 1월 여선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1977년 에스더선교회, 1979년 마리아선교회로 부흥되어 분리되었다. 1983년 1월 여선교회 총연합회(초대회장 진병희 장로)가 조직되어 2021년 현재는 박관순 사모와 한정희 사모 외 두 명의 고문과 총회장 이화열 권사를 비롯한 30명의 연합회 임원 및 464개 개체선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첫 주일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월례회에는 개체선교회장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개체선교회 기도제목 및 목표를 공유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 개체선교회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뜻을 모으고 헌금을 드려 지금까지 국내의 선교를 위해 수 많은 교회와 선교센터를 봉헌했고, 교회내의 크고 작은 건축과 행사를 위해 물질과 봉사로 헌신하고 있다.

국내	1987년	전남 새롬교회
	1988년	전남 모정교회
	1991년	김포 광림교회
	1997년	서울대병원교회
	1998년	거제 광림교회, 광림역사관
	2009년	광림 동교회
국외	2013년	백마대교회 / 햇불교회
	2003년	몽골 어잉개별교회
	2007년	P국 카라치 선교센터
	2008년	심천 광림교회
	2010년	러시아 깔리닌그라드교회
	2013년	러시아 베다니교회
	202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미션센터

여선교회총연합회 주요 활동

여선교회 주요활동은 선교, 영성교육, 교회행사 및 시설과 운영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선교는 사랑부, 외국인제자센터, 경조위원회,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경찰대학교 교회, 여선교회 성가대, 리브가 선교회에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운영을 돕고 있다. 해외선교는 2021년 봉헌을 기다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를 비롯하여 매년 해외선교지 교역자 급여후원과 선교사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내며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는 즉각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교육은 매월 열리는 월례회와 2월의 교육세미나로 개체선교회 부흥에 도움을 주며 광림남, 서, 북교회 월례회 및 바자회 방문과 격려를 통해 지교회 개체선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2020년 첫 선을 보인 <이 때를 위함이니이까> 같은 전교인 대상 구국기도회와 매달 열리는 개체 연합회별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한 여선교회 총연합회 임원들의 월요 기도회가 올려지고 있고 임원들의 성경통독도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 중이다. 일년에 한 두번 열리는 바자회는 선교를 위한 여선교회의 대표적 행사로 전도 대상자와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 문화를 접하게 하고 나아가 선교에 동참케 하는 전도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온라인 바자, 브로셔 바자 등의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 바자회의 갈 길과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선교회 교육분야의 대표적 행사인 익투스 영성훈련은 여선교회 회원을 중심으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영성 프로그램으로 2001년 시작되어 현재 32기까지 약 1,3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비전

여선교회의 비전은 '멈출 수 없는 오직 선교'로서 첫째, 선교와 봉사(교회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둘째, 지도자의 교육(지도자가 먼저 심는 헌신의 씨앗)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활동이 멈추었을 때도 여선교회는 말씀 묵상과 선교 사명 정상화를 위한 기도로 온라인 바자회라는 새로운 형식을 응답 받았고, 총연합회 임원들의 씨앗헌금으로 시작된 선교헌금과 성도들의 바자를 통한 헌신을 모으고 '코로나를 이기는 희망' 행사를 통해 모은 헌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화열 권사는 "올해 목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남연회 감독 취임은 여선교회에게도 이웃을 위한 선교의 장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성취를 적극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방과 민족을 품으며 지경을 넓히는 기도회와 말씀통독을 통한 영성 훈련으로, 멈출 수 없는 '오직 선교' 비전으로 여선교회 총연합회 임원들이 먼저 헌신의 씨앗을 심고, 끊임 없는 선한 동기부여를 찾아 개체선교회와 공유하고 그 운영을 세심하게 도울 계획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464개 개체선교회가 사명의 기쁨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성장을 하여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선교의 열매를 맺는 2021년이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